

문화광장



김준기 미술평론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역사의 성찰과 더불어 그 속에 담긴 참 뜻을 되새겨 바른 이름을 짓자는 정명(正名)운동이 곳곳에서 한창이다. 이른바 '여수·순천반란사건'으로 규정된 1948년 '여순반란사건'도 '여순항쟁'이라는 새 이름으로 정명하려는 공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제주4·3이 작년의 70주년기념사업을 거치면서 전국적 의제로 떠오른 데 이어 여수와 순천에서도 지식인과 시민활동가, 예술가들이 함께 반란에서 항쟁으로의 정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사건이 왜 반란에서 항쟁으로

여순, 반란과 항쟁사이의

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는 제주도 민 학살명령을 거부한 다음의 호소문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애국인민에게 호소함 :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사람의 아들로서 조선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민중의 복지를 위하여 총력기하였다. >1. 동족상잔 결사반대 >2. 미군 작시 철폐 - 제주도비출동거부병사위원회" 1948년 10월 19일. 여수의 14연대 군인들은 이렇듯 '조선사람의 아들로서 조선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총력기했다. 다음날에는 여수 인민위원회가 인민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인민위원회는 행정기구

를 접수하고, 일제부역자 처벌, 토지 개혁 등을 결의한 후, 친일경찰 체포, 친일파 예금동결 및 재산 몰수, 식량 배급 등 해방 후 조선사회의 숙원인 민족적 과제의 해결을 시작했다. 여순정명운동에 공감한 한반도와 제주도의 예술가들이 기획전을 열었다. '2019 여순평화예술제 : 손가락총' (순천대학교박물관 2019.10.19. 토~11.10.일)이 그것이다. '여순평화'라는 개념은 반란과 항쟁 사이에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세대와 세대, 세력과 세력 간의 간극을 매우면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화쟁적 사유를 담고 있다. 여수와 순천은 물론 광주전남, 수도권, 부산의 작가들과 7인의 제주 작가들이 결합한 전국 규모의 전시다. 오는 12월에는 제주도의 포지션 민 제주, 내년에는 부산 민주공원에서 순회전으로 이어지니, 여순의 뜻을 세기는 예술

공론장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이 전시의 작은 제목은 '손가락총'이다. 사건 당시 여수와 순천에서는 정확한 근거나 법적 과정 없이 손가락으로 지목을 당한 이들을 뺑깡이로 몰아 처형함으로써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착화 했다. 따라서 '손가락총'이라는 단어는 학살과 희생에 대한 추념을 매개로 제주도와 광주를 비롯한 한반도의 어두운 역사를 성찰하는 메타포이다. 이 전시는 여순항쟁뿐만 아니라 20세기 식민과 독재, 제국과 국가의 폭력에 맞선 평화 의제를 확인함으로써, 여순항쟁을 여수와 순천 내부의 특수성에 그치지 않고 제주4·3 항쟁과 연계한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재평가한다. 70년 넘게 묻혀있던 제주와 여순은 바야흐로 20세기 한반도의 민중항쟁사로, 나아가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여는 평화의 제로 공진화하고 있다.

사설

성과 없이 끝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자본검증위원회가 10개월 만에 열리면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JCC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자본검증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25일 도청에서 5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4차 회의에서 결정한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한 계약에 입금하도록 JCC측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JCC는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1억달러(약 1200억원)를 자신들 계좌에 이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본검증위는 사업자측 자료에 대한 소명 등이 미흡해 자본검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JCC가 자본검증위의 결정을 사실

상 불복하면서 다음달 작성·의결되는 '의견서'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은 타당성을 떠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본검증을 실시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의 권한남용이자 초법적 조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또 자본검증이 기약없이 시간을 끌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2017년 6월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발표한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본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니 제주도의 투자유치 실적도 좋을리 있겠습니까. 행정이 투자자를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발목잡기로 비쳐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도 더 이상 질질 끌어서 안됩니다.

먹는물 질산농도 증가는 수질 악화 경고음

제주도내 일부 마을 상수도에서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증가하면서 수질 악화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연구원 수질과 수량이 양호했던 동부지역에도 질산성 질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 지하수 오염원 실태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구좌읍의 경우 2014년 3.0mg/l 수준에서 2018년 4.0mg/l을 넘어서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정 제주의 물이 수질 오염 우려에 노출되면서 안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산성 질소는 상수도에서 유기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 색달 마을의 경우 2017년 5.4mg에서 8.4mg으로 급증했습니다. 더욱 걱정인 것은 다른 마을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질산성 질소 증가 등은 그동안 주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문제

점이 부각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부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8월 제주연구원은 수질과 수량이 양호했던 동부지역에도 질산성 질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동부지역 지하수 오염원 실태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구좌읍의 경우 2014년 3.0mg/l 수준에서 2018년 4.0mg/l을 넘어서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정 제주의 물이 수질 오염 우려에 노출되면서 안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산성 질소는 상수도에서 유기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 색달 마을의 경우 2017년 5.4mg에서 8.4mg으로 급증했습니다. 더욱 걱정인 것은 다른 마을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질산성 질소 증가 등은 그동안 주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문제

열린마당

'일상이 문화' 지질학을 마치며



한원택 청산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모임 회장

인 성산일출봉의 지질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자연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마을주민의 공감대 조성에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지질학의 주요 내용은 지질과 화산 기본 이론학과 마을지질에 대한 현장학습, 도내 지질명소비교 탐방, 지질학습종합보고서 작성으로 이뤄졌다. 지질학습보고서에는 학습에 참여한 동아리소개와 사업계획서, 학습 진행사항, 학습자체평가 등을 담았다. 지질학습보고서 작성은 동아리회원들의 소감발표와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지도강사의 자문을 받아 보고서를 완성했다. 지질학을 진행하면서 성산일출봉의 지질학적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했고 동아리모임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한 회원들은 '일상이 문화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지원을 해주는 서귀포시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청사모 동아리 회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 성산일출봉의 지질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자연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마을주민의 공감대 조성에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지질학의 주요 내용은 지질과 화산 기본 이론학과 마을지질에 대한 현장학습, 도내 지질명소비교 탐방, 지질학습종합보고서 작성으로 이뤄졌다. 지질학습보고서에는 학습에 참여한 동아리소개와 사업계획서, 학습 진행사항, 학습자체평가 등을 담았다. 지질학습보고서 작성은 동아리회원들의 소감발표와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지도강사의 자문을 받아 보고서를 완성했다. 지질학을 진행하면서 성산일출봉의 지질학적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했고 동아리모임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한 회원들은 '일상이 문화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지원을 해주는 서귀포시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청사모 동아리 회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저급품 차단이 노지감귤 최대 관건"

올해 날찌 영향 가격 비상 ○...가을장마와 잇단 태풍에 의해 올해산 극조생감귤 출하가 평년보다 늦춰지며 조생감귤 출하 시기와 상당 부분 중복, 가격형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28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극조생 감귤 출하는 평년엔 9월 말 시작돼 10월이면 종료되지만 올해는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저급품 감귤 차단이 최대 관건. 농협 관계자는 "올해 많은 비로 노지감귤 품질에 따른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며 "농가의 저급품 출하 차단 의지가 가격형성에 있어 절대 조건"이라고 강조. 백곶특기자 생수시장 경쟁 점입가경 ○...국내 생수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브랜드 평판에서도 삼다수의 아성이 굳건함 속에 브랜드별 순위 다툼도 점입가경.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생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평판 1위는 삼다수, 2위 에비앙, 3위 백산수 순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 20위까지의 순위 결과 삼다수는 부동의 1위를 지키는 가운데 앞치락 뒤치락하는 에비앙과 백산수의 2위 싸움은 물론 10위권 진입을 노리는 10개 가량의 업체들 부침에 이목이 집중. 조상윤기자 주민복지과 봉사활동 귀감 ○...제주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매일 정기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제주공직사회에 귀감. 주민복지과 전직원은 지난 26일 오라동에 위치한 아름마을요양원을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 매일 1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방문해 환경정비와 텃밭을 가꾸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김태리 주민복지과장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여하는 봉사라 더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시간이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도 되고 있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부고
강상훈(前 광령리 이장) 어머니 고부이씨 원춘(향년 93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27일 16시 46분 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0월 29일(화)
▶발인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오전 9시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301분향실
▶장 차: 제주시 양지공원
아들 강상훈 며느리 정계순
대훈 강복심
기훈 현순여
지훈 장은미
딸 강영숙 영순 영희
손자 강승용 승보
\*연락처: 강상훈 010-4693-3478
강대훈 010-3639-3635
강기훈 010-7174-0821
강지훈 010-3697-3992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중문라이온스클럽장 공고
중문라이온스클럽 제24대 회장 김수일(계서 2019년 10월 28일 03시경 별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중문라이온스클럽장을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0월 29일(화)
▶장 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발인시간: 2019년 10월 30일(수) 오전 8시
▶영결시간: 2019년 10월 30일(수) 오전 8시 30분
▶영결장소: 하귀농 협회사 주차장
▶장 차: 양지공원
-장례위원장: 회장 김수일
-집행위원장: 제1부회장 고부영
-장례부위원장: 제2부회장 이원순
제3부회장 이영근
부인 강숙녀
아들 김명식 사위 김성보
딸 김경미 김동현
손자 김신형 외손자 김주환
손녀 김지안 김시완 김건호 김건미
\*연락처: 강숙녀 010-8767-0864
김명식 010-2410-4280
2019년 10월 30일
故 김수일라이온 중문라이온스클럽장 장례위원장 김수일

제주도 토지 매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
·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494,244㎡(분할매매 가능)
·2차선 도로점 시멘트 도로점
기타문의 전화요망
☎ 010-5110-5660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코프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원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포로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이름짓는집
신생아 이름짓기, 개명, 이름풀이, 신수, 택일, 궁합
작명원칙에 따라 개성있고 멋있는 이름을 짓습니다.
법학사, 행정학석사, 철학박사, 역학상담사, 작명사 1급
용산절학관
서귀포시 신희앞 송월마을 옆집
박용산 010-4464-3238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